전법 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웅장원 찾아온 걸인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돼 점차 기승을 부리던 따뜻한 봄날에 산문 밖을 나섰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 법이라. 〈금강경〉과 〈법화경〉을 짊어지고 흐르는 물이 되어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만행을 계획했다.

하산하던 날, 온 대중은 만행을 결정한 나를 의아해했다. 선방이나 율원을 간다면 능히 격려하며 보내줄 터이나 홀로 만행을 한다고 하니 은사스님은 상좌가 풍진 세상으로 들어가 행여나 악업에 물들까 전전긍긍하셨다. 그럼에도 나의 결정은 단호했다. 번잡한 시장에서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곳이 곧 절이고 수행자라 하지 않았던가.

화광동진(和光同塵).

'그동안 세상 밖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공부해야지.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이 먼저 쉬어져야 관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감을 알려면 그동안 일으킨 만 가지 번뇌를 떨치고 지금까지 온갖 세상의 이치대로, 상식과 관념으로 분별을 쉬어야 한다. 그렇게 오로지 모든 것을 연기(緣起)로 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때맞춰 사방이 온갖 욕락으로 둘러싸인 뜨거운 길 위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에 작은 포교당을 개원했다. 주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포교당 불사가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지라 오로지 화엄법계를 믿고 하나씩 쌓아올렸다. '웅장원(熊張湲)'은 그렇게 탄생했다. 지역주민 응모로 포교당 이름을 지어서일까. 물을 찾아 만생명이 모여들 듯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대중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여름날에 두툼한 겨울 점퍼와 반바지 차림을 한 걸인이 찾아와 돈 몇 푼을 요구했다. 큰 절이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겠지만 이 또한 만행의 과정이리라. 처음엔 5000원을 부탁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때론 만원, 그리고 2만원으로 조금씩 더 큰돈을 원했다. 한편으론 의심이 들었지만 그 또한 분별심이라 여겼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걸인은 비에 젖은 몸으로 다시 웅장원을 찾았다. 진동하는 땀 냄새와 비에 한껏 젖은 신발, 그리고 구멍 난 짝짝이 양말…. 평소처럼 별 일 없이 돌아간 그는 2주 뒤 다시 찾아왔다. 그날 옆에 있던 도반스님은 미리 준비해둔 유명 메이커 신발과 양말을 선물했다. 발사이즈를 물었을 때 260을 신는다며 자신은 '나○키' 신발을 좋아한다던 말을 기억해놓았던 것이다. 아마도 10만원은 넘었을 새 신발에 걸인께서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걸인은 웅장원에서 마지막으로 법당 부처님전에 절을 올렸다. 자그마한 분별심이 연민으로 바뀐 그날부터 걸인은 더 이상 웅장원에 오지 않았다.

말끔히 양복을 차려 입은 사람과 비루한 행색의 걸인. 그 모습에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건 나의 분별심 때문이다. 지금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무엇도 아닌 앞사람이란 걸 되새겨본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① 연재를 시작하며

'과학 만능'이라는 이상한 환상

우리 시대는 거대한 환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 환상은 그럴듯한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환상은 과학에게 전능이라는 멋진 옷을 입혀준다. 과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실험실 증거들에 힘입어 설득력을 드높이고 있다. 과학에 대한 맹신은 기묘한 선험적 도식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철학을 뒷자리로 물러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상은 과학의 답변을 해답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 한다.

얼마 전까지 욕망은 '타자의 욕망'으로 이해됐다. 이 타자와 관련된 질문들은 주객이 전도돼 데이터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로 변경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지시에 충실한 인간은 곧 호모 디지털리스(Homo digitalis)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과학으로 무장한 문명은 온갖 데이터를 제시하며 현대인을 조작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은 세련된 인공지능들을 마주하며 전능한 과학에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인은 사유능력을 포기하고 빅데이터의 지시에 충실하고자 한다. 과학은 욕망을 해석하고 메뉴로 제시하며 욕망에 대한 사용법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환상이 실제로 지향하는 것은 동일성을 지닌 주체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에 의하여 제작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모방하여 기능적으로 인간화되던 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체의 동일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타자화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화된 과학 자신을 만족시키며 인간을 배제하는 형국이다. 앞으로 과학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철저한 소외일 것이다. 과학은 스스로를 위해 기능할 뿐, 인간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탐구'라는 미명하에
과학 절대화의 환상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
'正見'으로 허상 탈피를

현대의 최첨단 과학은 인류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괴리되어 있다. 엘리트 과학자들은 호기심 그 자체를 위해 연구하기 때문이다.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적 연구들이 철저히 상업화되어 자본의 질서에 편승하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위한 과학기술의 실태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은 기존 상식의 틀 위에 덧입혀진 선입견에서 벗어나 온갖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꽃피어난다. 가령 비윤리적 생체실험들은 인간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자연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탐구라는 미명하에 과학 절대화의 환상이 가속화된다. 우리 시대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권위가 구석구석 작동하며 우리를 옥죄고 있다.

생태적 윤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불교의 시선은 이러한 족쇄가 현실인지 검토하는 일이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백지상태가 아니다. 진화과정에서 직면했던 생존경쟁으로부터 형성된 업식이 내재된 공간이다. 즉 적자생존과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경 회로의 총합이 탑재되어 작동하는 곳이다. 이처럼 생명이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듯, 생태계는 기술이 조작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생명과 생태계를 따뜻하게 보듬고자 하는 실천이 커다란 의미의 자비관이 아니던가? 과학과 종교가 갈등 없이 동행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무엇인가? 불교는 과학에 대하여 유난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시선, 즉 정견에 의하여 과학만능이라는 환상의 허울을 벗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성경도 '구업'을 경계하라 했다

오래전 달동네에서 작은 법당을 두고 수행생활을 하다 20여 년 전 주택가로 이전한 스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스님에게 과거 허름한 법당을 떠나 이제는 제법 번듯한 사찰로 변모한 역사를 들으며 한창 고개를 끄덕이던 찰나였다.

"근데 달동네 시절이 더 좋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옛날 법당은 성인 3명이 서있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좁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황당함은 이어진 스님의 얘기에 곧바로 사라졌다.

스님이 사찰을 이전해온 동네는 대형교회와 신학대학이 즐비한 이른바 기독교 영역이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텃세 피해를 입었다. 동네 꼬마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라도 나누면 부모가 되레 아이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기 일쑤. 누군가는 "절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형제들이 암에 걸려 죽는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스님의 귀엔 "범죄자 소굴인 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문도 들려왔다.

다른 종교와의 교류를 싫어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비방·폭언·욕설은 범죄다. 불교가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구의(身口意) 삼업 가운데 구업이 있는 이유다. 하물며 불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에 이런 가르침이 없겠는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누가복음 6장 45절)

마태복음에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순 없는 일. 종교인이기에 앞서 사람됨이 먼저다. "말은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던 원로 신학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릇된 신앙심으로 무고한 이를 괴롭히는 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은 예수도 원치 않을 것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